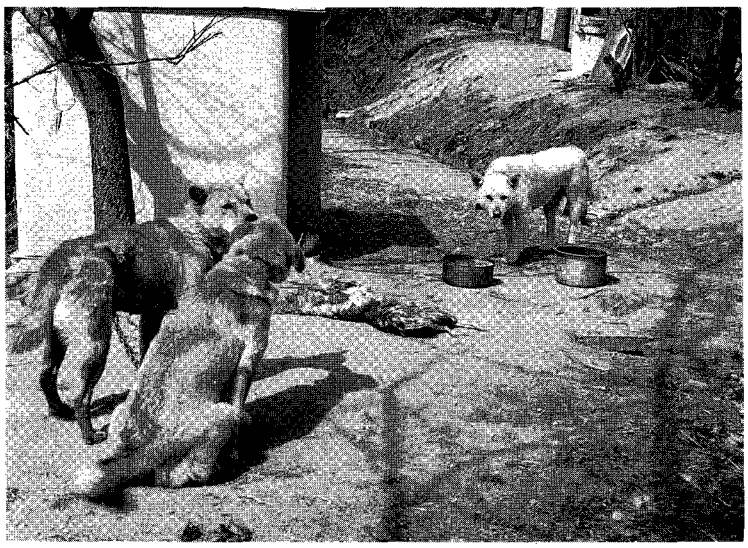
폐사계 처리의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가!

□ 취재/김동진 기자

산란계의 경우 3만수를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보통 1년에 3천여수의 폐사계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질병(특히 가금티푸스)에 의해 집단 폐사가 이어질 경우에는 엄청난 폐사계가 솟아져 나오게 된다. 만일 이같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폐사계를 계사밖에 그냥 방치하거나 쓰레기장 혹은 계분장에 버린다면 위생적인 측면에서 농가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은 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파헤쳐 보면 위생관념을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과연 채란계 농장에서 폐사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폐사계는 대부분 개들의 먹이로 이용되고 있어 질병전파의 위험을 높여주고 있다.

1. 폐사계처리 실태

국내 채란계 농장에서 폐사계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나 돼지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계분장에 버리는 경우, 매몰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방법들은 농가입장에서 폐사계를 처리하는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질병전파라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외에 소각하는 경우 발효기에 넣어 처리하는 경우 등도 있었으나 이는 극

히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가축(개)의 먹이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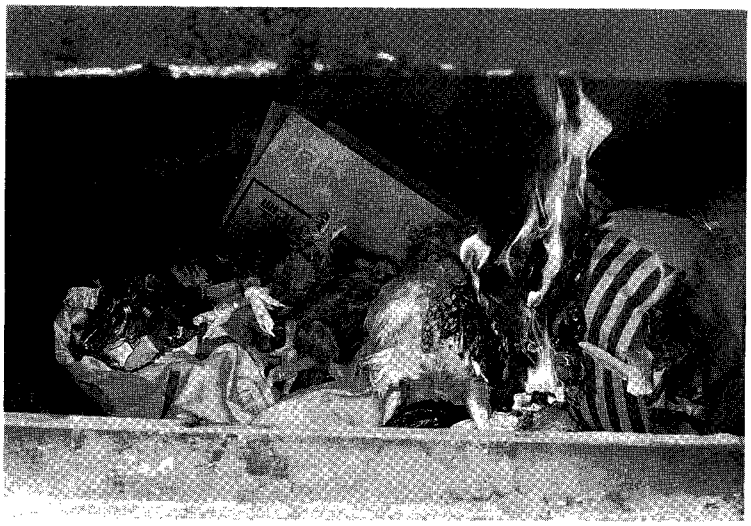
죽은 닭을 삶아 개, 돼지 등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사실상 각 농가마다 한 두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계사주변에는 집단 개사육 농장들이 성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방법은 농가에서 폐사계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 개 사육농가에서 주기적으로 수거해가므로 손쉽게 폐사계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개 사육농가에서도 돈 안들이고 먹이감을 구할 수 있어 서로간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정착되어온 생활방식이라 볼 수 있다.

2) 계분에 버리는 경우

개나 돼지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는 농가에서는 폐사계를 계분을 처리할 때 계분과 함께 섞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죽은 닭을 더러운 계분에 버리면 자연히 발효과정을 거쳐 아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질병에 감염된 폐사계는 계분장에 버릴 경우 여러 농가를 드나드는 계분차에 의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3) 매몰처리

매몰 처리는 질병발생으로 인해 집단으로 폐사계가 쏟아져 나올 경우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땅만 충분하다면 매립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죽은 닭을 땅속 깊이 묻지 않거나 빗물이 스며들게 매몰을 했을 경우 환경문제는 물론 질병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매몰을 할 경우 농장마다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부패시킬 목적으로 살짝 흙으로 덮는농가가 있는가 하면 구덩이를 아예 깊게 파고 다 찰때까지 폐사계를 계속 집어 넣는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예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 매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4) 소각처리

소각처리는 질병 방역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폐사계 처리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내에 소각기를 이용하여 폐사계를

처리하는 농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에 유일하게 소각기를 보급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는데 소각기 판매업체인 A업체에 의하면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소각기 판매대수는 양계 전체적으로 15대로 극히 저조하며 그나마 1996년 이후에는 주문이 거의 없다고 실상을 말해 주었다.

또한 설치했던 농장의 경우도 경제위기 이후 뛰어오른 연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매몰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농가의 경우 소각기의 필요성을 느껴 구입하려 했으나 2중 투자를 하는 것 같아 포기했다는 사례도 있다.

5) 외국의 폐사계 처리

가까운 일본의 경우 폐사계는 소각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화장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위생관념이 농장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 소각의 생활화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 소각처리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각기를 설치하여 폐사계를 처리하는 농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 농장내에 대형 냉동고를 설치하여 폐사계는 나오는대로 꺼내어 얼린 다음 냉동고가 차면 꺼내어 육골분을 만드는 공장이나, 도계장에 렌더링 처리를 하는가 하면 우모분을 생산하는 공장에 가져다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매립할 닭을 얼려두었다 매립하고 있는데 이는 위생관리 측면에서 병균의 전파를 막는 최선의 처리방법으로 볼 수 있다.

2. 폐사계 처리로 인한 질병전파 위험성

개를 사육하는 농장에 폐사계를 처리할 경우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은 개를 수거해가는 사람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농장만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많은 닭들을 구입하기 위해 다수의 농장을 이동해 다니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육계, 산란계, 종계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다닌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수의사에 따르면 개 사육자가 육계에서 나오는 닭들을 수거하다가 육계가 출하된 후 닭을 구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에 들어와 닭을 수거해간 일이 있었는데 육계에서 발병되었던 ND가 산란계 농장에 들어와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있음을 실례

로 들려주었다.

두 번째로 계분에 병계를 처리할 경우 계사가 영원한 질병의 온상으로 이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실예로 가금티푸스에 감염된 계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계분에 병계를 처리했다는 한 농가의 경우 모든 닭을 뺄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 계사내부를 수차례 소독하고 최종적으로 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사 내부에서는 전혀 균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선별기와 계분장에서 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계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국내의 모든 도로가 개방되어 있는 관계로 계분수송차량이 지나간 자리를 농장에 방문하는 모든 차량들이 빈번히 드나들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도로가 질병 전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가금티푸스가 전국에 쉽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폐사계 처리의 불감증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매몰의 경우는 구덩이를 깊이 파고 완벽하게 묻었다 하더라도 차후 빗물이 스며들어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사와 떨어진 곳 중에서 안전한 곳을 선정해 매몰을 시켜야 한다.

3. 소각 및 매몰, 어느 곳에든 가능한가!

외국에서와 같이 소각 및 매몰처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소각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소각기의 가격(약 200만원/대당)이 비싸고 기름값이 많이 든다는 선입견이 앞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각을 할 경우 환경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에는 죽은 닭을 소각하거나 매몰할 경우 법정전염병으로 닭이 폐사하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정전염병으로 닭이 폐사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농가에서 소각기를 비치할 경우 큰 제약을 받지 않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100kg 이하(지정폐기물 외)일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정 폐기물(닭은 해당 없음)이라 하더라도 시간당 25kg 이하를 처리할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계용으로 생산되는 소각기(시간당 30kg)는 법적으로 제제를 받지 않으며 환경오염 문제도 대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폐기물관리법에는 동식물성잔재물 등 부패성 폐기물의 경우 이를 매립할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3m가 되기전에 복토를 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각 및 매몰기준에서는 물품을 소각하는 시설이 있는 장소(매몰은 해당 없음)나 집단가옥, 수원지, 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

소에서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정확히 지키는 농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닭을 파묻으려고 땅을 하니 그곳에 이미 닭이 묻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농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폐사계의 위생적인 처리방안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병전파의 경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계사내 출입 제한, 각종 출입차량 제한, 기계기구의 완벽한 청소와 소독, 구서, 폐사계의 올바른 처리 등이 함께 이루어 질 때 농장의 완벽한 방역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폐사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권장하고 싶은 것은 폐사계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의 경우처럼 냉동고를 설치하여 완벽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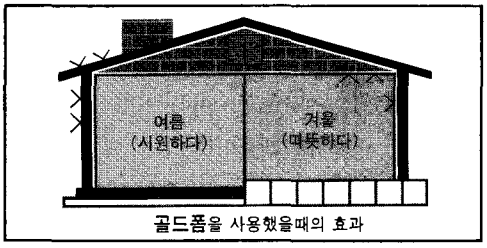
부득이 개 사육농가에게 폐사계를 전달할 경우는 그들에게 철저한 위생개념을 상기시키고 죽은 닭은 반드시 비닐봉지에 넣어 계사 밖에서 전달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구덩이를 파서 묻을 경우 질병전파의 위험이 없는 곳을 선정해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묻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질병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농가에서는 보다 위생관념을 한층 높여 폐사계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

21세기 첨단단열재 골드폼 독일형 상압식 압출보드 단열재

단열재 선택

- 변 함 없 는 단열재
- 자 기 소 화 성 단열재
- 세계가 인정한 단열재
- 축사에 적합한 단열재



골드폼을 사용했을때의 효과

쾌적한 축사를 원하십니까? 골드폼이 해결해 드립니다.

※축산농가에서 인기높은 이유!

1. 우수한 단열로 겨울철 사료비 절감.
2. 우수한 단열로 냉난방의 에너지 절감.
3. 축산농가의 생산성 증가

자매품 : 스치로폼, 갈바륨, 샌드위치 판넬

기획영업팀
서울이피에스산업
전 화 : (0331)225-4980

휴대폰 : 017-360-8899(直)
호출기 : 015-8387-4980
팩 스 : (0331)238-0423